

## 한국여성재단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 각층의 리더들과 124개 여성단체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진정한 활동과 상생의 미래사회 구축을 위해  
평등사회를 일구는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대안적 돌봄사회 건설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참여 \_ 모금의 전 과정과 기부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국민은행 079-01-0405-971 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농협중앙회 369-17-005283 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우리은행 500-056038-13-001 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의 기부하기 로 참여하세요.

# 꿈과 희망을 그리는 여인들

딸들에게 희망을

한국여성재단 10년, 기억과 상상

한국여성재단 10년, 기억과 상상

다들 물어봐  
노랑을

한국여성재단 10년, 기억과 상상



## 더불어 나누어주신 사랑으로 새로운 10년을 꿈꿉니다

조형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1세기 우리 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여성 지도자와 그 친구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 10년, 기억과 상상>을 펴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재단의 10년은, 한국 여성정치사의 큰 획을 남긴 호주제폐지, 여성국회의원 할당제 등 성평등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함께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성장과 활동을 격려하고,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동안 재단도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신 소중한 기부자 여러분께 대해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애 최초로 여성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이가운 양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 기부자들, 자신의 재능을 선뜻 내어주신 많은 홍보대사와 작가들, 꾸준히 여성재단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운 많은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여성재단은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고,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의 위상에 걸맞게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해올 수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연과 소중함을 책 한권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창립 초기의 그 열정과 고민, '기부' 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해내기 어려운 나눔이들의 사랑, 여성재단이어서 해낼 수 있었던 많은 지원사업들을 생생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읽기 좋은 글로 만들고 책으로 꾸며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현아 작가와 그의 꿈나무 제자들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믿음과 나눔을 주신 여러분, 이제 지나온 10년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또 다른 10년을 시작한 한국여성재단이 가는 길에 든든하고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 〈한국여성재단 10년사〉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희호 |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한국여성재단 명예고문

1999년 12월6일,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53명의 공동위원장, 124개 여성 단체, 300여 명의 발족위원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후, 한국여성재단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 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 고자 수많은 기부자들이 동참하여 어느덧 1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만큼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장들, 사회적 편견에 맞선 여성장애인, 성폭 력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비정규직 삶에 저당잡힌 여성노동자들 모두 우리의 엄마이고 딸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위해 여성재단이 지원해온 많은 성과와 시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함께 해 주신 많은 기부자들과 기업 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그 동안 일구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찾아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활동해 온 여성단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많은 기부자들의 꿈을 담아 성평등사회 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으로서 여성공익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여성재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성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2010년 10월



## 차례

### 발간사

- 02 더불어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새로운 10년을 꿈꿉니다\_ 조형(한국여성재단이사장)
- 발간기념사
- 04 <한국여성재단 1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_ 이희호(한국여성재단 명예고문)

## 1부\_ 기억과 상상

### 기억과 상상

- 010 한국여성재단 10년을 뒤돌아보며\_ 박영숙(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014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시기\_ 윤후정(이화학당 이사장)
- 017 한국여성재단 10년을 맞이하며\_ 이연숙(한국여성재단 고문)
- 020 기억과 상상\_ 한국여성재단 추진위원 좌담회

### 사무총장던(傳)

- 037 그때 그렇게 재단이 만들어진 게 다행스러워요\_ 이재은(한국여성재단 초대 사무처장)
- 041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_ 윤미향(한국여성재단 2대 사무처장)
- 045 주는 손은 겸손하게, 받는 손은 당당하게\_ 강경희(현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2부\_ 여성재단 파트너들

### 천만 번 기부해도 괜찮아

- 054 여성재단의 반짝이는 별\_ 이가윤(돌잔치니눔 1호)
- 058 행복을 디자인하는 손\_ 박재영(울리아나미용실 원장)
- 063 나, 돈 모으는 여자예요\_ 이경순(100인 기부 릴레이 이끔이)
- 067 간절히 꿈꾸고 끝없이 도전하라\_ 이길여(이길여기금, 가천길재단 회장)
- 074 숲과 자연에서 올바른 삶을 배우는 사람\_ 이은옥(유한킴벌리 부사장)
- 078 마이 뷰우티풀 파트너\_ 서상웅(삼성생명 차장)
- 081 교보생명에서 여성재단을 찾다\_ 홍상식(교보생명 팀장)
- 086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_ 이상엽(우림건설 부장)



### 여성재단, 고마워

- 094 서정화의 리브스토리\_ 서정화(여성노숙인을 위한 드림인센터 <우리들의좋은집>)
- 098 아이다마일로 놀러오세요\_ 김성미경(아시아이주여성다문화공동체마을)
- 102 여성재단과 여성운동은 운명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_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 108 날자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였답니다  
\_ 김민정(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날자NALJA 프로젝트)
- 111 강릉에서 온 편지\_ 최영자(여성가장 긴급지원 캐쉬 SOS)

### 재능나눔의 꽃 '홍보대사'

- 114 서른아홉 나눔 레터\_ 진양혜 홍보대사
- 117 '말' 때문에 사랑받는 여자\_ 최광기 홍보대사
- 120 새침한 그녀와 마주치네, 오 한마디 인사도 못한다네  
\_ 양영아(이승철 홍보대사 팬클럽<새침떼기>회장)

### 여성재단의 딸들

- 124 <여성재단, 미래세대가 말한다> 간담회
- 130 섬에 피어난 국화\_ 조세현의 포토에세이

## 3부\_ 여성재단의 미래

- 134 한국여성재단과 여성운동의 미래\_ 조형(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138 여성재단의 역할과 기대\_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 140 현장에서 '희망'을 기획하라\_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142 여성재단 10년을 내다보며\_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재단 10년, 축하글

- 147 돈과 도\_ 박미라
- 150 여자 셋이 모이면 돈이 아홉 말\_ 오한숙희

### (부록) 한국여성재단 10년의 발자취

- 153 한국여성재단 연혁
- 160 한국여성재단 10년 모금과 배분 현황
- 167 한국여성재단 10년 지원사업 현황
- 179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 1

## 기억과 상상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한국 최초의 민간여성기금을 설치하였다. 명예위원장 이희호 여사를 비롯 종교계, 학계, 여성계, 경제계, 법조계 등 각 계 각층의 대표, 발족위원 300여명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딸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그 뜻을 모았다. 함께 했던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들이 전하는 그 당시 여성운동의 현실, 의의, 감동을 전한다.

기억과 상상



박영숙 |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고문

## 한국여성재단, 10년을 뒤돌아보며

지난날을 뒤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앞날을 바르게 내다보기 위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10년 전 한국여성재단이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1999년도에는 세상이 온통 새로운 세기를 맞을 준비에 들떠 있었다. 그때 여성계가 꿈꾼 것은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 아래 여성운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우리사회에 투명하고 명예로운 기부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태동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재단으로서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을 위한 재단을 형성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시민사회의 새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기록될만하다.

여성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모금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기본과제를 반복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파트너 단체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광장이 마련되어 힘이 된다고, 기부자들은 평등세상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얻어낸 것이다.

여성들은 재단을 통해서 소진된 활력을 재충전하는가 하면 집단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결집된 힘을 과시하는 등 여성들이 하늘을 떠이고 있는 반의 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발군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재단의 활동이 또 다른 하나의 여성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기부문화에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성차별을 견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은 정부의 예산집행에서 성인지성을 주창하리만큼 개명되어 인구의 반인 여성들은 지금 제 몫을 찾는 일을 구걸하는 것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행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2의 여성인권선언'이라고 하기도 한다.

재단의 출범이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은 무엇보다 IMF 환란이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단체들이 재정난을 공히 겪고 있던 터라 모든 여성단체가 정파성과 이념성을 초월해서 재단을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재단설립 발의자들은 한국여성재단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민간재단으로 하되, 인구의 반인 여성들의 재단이니만큼 국기수반의 후원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마침 대통령 부인이 여성운동가 출신이어서 추진위원회의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을 비롯해 53명의 사회각계 남녀공동위원장과 여성계 원로들이 앞장서줌으로 해서 재단 추진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재단은 대통령 부인이 재단의 후원자가 되는 전통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면서 맥이 끊긴 것은 아쉽다. 그러나 이 전통은 앞으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여성재단을 포함한 공익재단의 중요한 기능은 지원자와 피지원자 간의 ‘중간기구(Intermediary Organization)’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지원을 직접 주고받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운동체의 정체성의 훼손을 막는 일이다.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피지원자가 지원자의 간섭에 의해 정체성을 잃게 되면 운동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중간기구로서의 공익재단의 존재가 미약하다. 그것은 국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척박한 기부문화와 정부의 육성책 부재, 그리고 시민사회의 전략 미숙 탓으로 돌릴 수 있겠으나 크게는 기부원의 나눔의 성향이나 양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모금방안이 동원되어 조성된 소액기부자들의 기부금이 가장 순수한 기금으로서 단체 활동의 윤활유가 되고 있지만 개인자산가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의 큰 손들의 기부 없이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를 일궈내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로 불어 닥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수칙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기부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부금의 절대액이 정치권으로 흡수되던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쉬운 것은 사회단체나 풀뿌리 운동, 빈민과 소수자들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아직 그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 싹트기 시작한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중간기구인 공익재단들의 공동협력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앞으로 기업들이 기업 내에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직접사업으로 전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발전되어 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시민사회는 공익활동의 성취를 담당하게 언어내는 기부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재단이 초창기부터 모든 활동을 파트너단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며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정마련책으로서 우선과제는 정부, 언론, 사회가 시민사회운동을 사회개혁운동과 사회서비스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는 것이다. 후자인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못다 한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영국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여성재단이 공익재단의 개척자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며 직면한 걸림돌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화폐단위가 ‘환’이었던 시대에 제정된 기업들의 재단구성 운영을 규제하던 법률을 오늘의 시민사회 공익재단 운영에 적용하는 데서 불거진 문제들은 재단운영의 준법정신을 저해하거나 십시일반으로 어렵게 모금한 기부금을 세금과 벌금으로 국가에 환수하게 하는 것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육성지원관련 법률도 정부의 행정편의 또는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본래의 의도를 살리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지형을 바꾸는 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과제는 개개 법 인체가 감당할 수 없다. 연합된 힘으로만이 성취해 낼 수 있다. 중간 기구들의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세상은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정부의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경향은 시민사회의 나눔과 돌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게 한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 사회>에서 ‘21세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인류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간파한 바대로 시민사회운동, 여성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간 기구인 공익재단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길에서도 여성재단이 선두주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윤후정 | 이화학당 이사장

##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시기

1999년 5월 어느 날 대학동기인 박영숙선생이 나를 찾아왔다. 여성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너 같이 안할래? '그래 같이 하자꾸나, 그런데 재단을 세울 기금은 있는 거야?' '없지 뭐' '돈 한 푼 없이 재단을 설립하자고? 허!허!' 어쨌든지 우리는 그때부터 조감도(비전), 설계,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다들으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또 한편 기금모금을 위해 뛰었다. 박선생 노력으로 재단을 세울 수 있는 10억 원 후원자를 만나게 되어 재단 설립의 길이 쉬워졌다.

1999년 11월 5일, 여성계·종교계·학계·경제계·의료계·언론계 기타 등등 대표자급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한국여성기금추진 발기인대회를 결성하고 이희호 여사, 윤후정, 박영숙을 각각 명예위원장, 수석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한국여성기금의 목적·Mission, 기금모금방법, 배분대상, 운영방법, 소식지발간 등 추진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고 종합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 딸들에게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찬 새천년을 물려주고, 더불어 21세기 한국을 활기찬 나라, 국격 높은 좋은 나라로 성장케 하고,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합의하기를,

여성재단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의식변화 도모,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적·세계적 여성인재·리더십 배출, 남녀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 풍토 조성, 정치적·이념적 경향성을 불문한다. 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추진사업·역할로서, (i)의식개발사업 지원, (ii) 각 분야 여성능력개발, (iii)빈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여성 지원, (iv)여성운동·여성단체활동 전문화 제고, (v)여성의회·고위공직진출 지원, (vi)여성국제적활동 지원 등을 정했다.

한편, 기금조성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 53명을 기금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렇게 부지런히 땀 우리들은 빈손으로 시작했으나 16억 원을 쥐고 1999년 12월 6일, 53명의 공동위원장, 124개 여성단체의 참여와 회원 300여명의 참석 가운데 한국언론재단에서 성황리에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발족케 하였다. 그달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서의 설립인가도 받았다. 그런데 법인설립을 하자니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했다. 의논 끝에 우리들보다 선배이고,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분을 모시려 무척 애썼으나 완강히 사양하는 바람에 결국 박영숙 선생은 나와 치열한 투쟁을 하다 내가 이겨서 박선생이 이사장이라는 짐을 지게 되었다.

2000년 1월부터 3개월간 우리들은 부산, 광주, 대구 등 12개 지역을 돌며 여성단체장 순회 간담회를 열면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회원 전국적 확대 활동을 벌여나갔다. 간담회에서 만난 이들 단체장들은 여성을 위한 역사적 사업이라면서 참으로 기뻐들 한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동전모으기에서부터 ARS생방송모금, 월급나눔, 유산나눔, 의료계, 가게판매수익나눔, 모금함 놓기, 브로치제작판매, 국민카드발행, 콘서트 개최, 여성 친화적 기업공동캠페인 등등 비빌 언덕이 되는 일들은 마다한 일없이 했다. 나는 원래 숫자가 좀 없는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모습이 어색해짐을 의식해 속으로 진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다. 지금도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 혼자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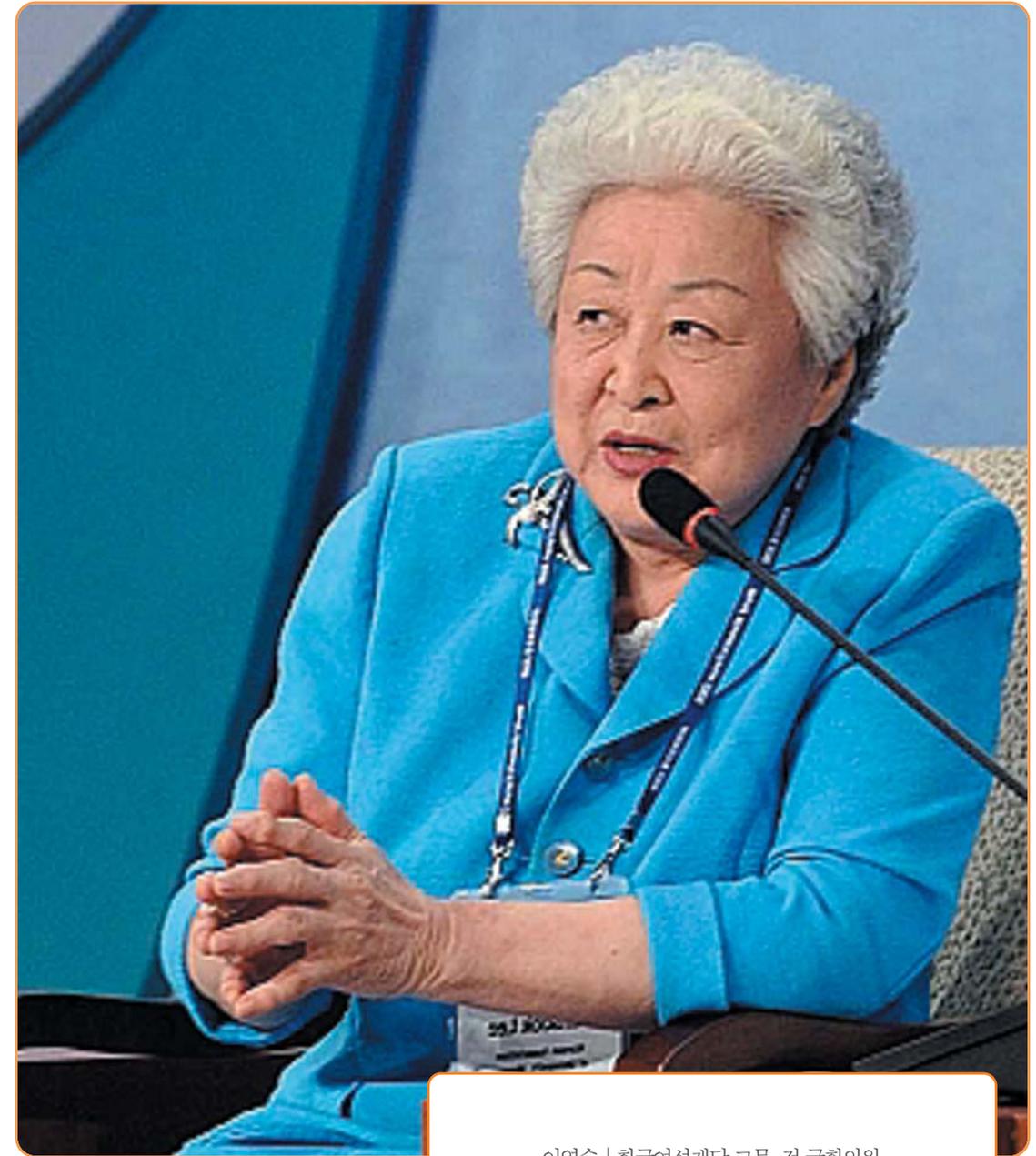
2001년 5월, 한국여성기금을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2년 12월 6일 정기이사회는 좀 더 튼튼한 조직체계를 위해 한국여성재단으로 전면적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그해 말 현재로 13만여 회원과 약 7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3년 동안 초창기 역할을 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는 발전적 해체를 한 셈이며, 나는 자동적으로 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 자리를 벗어났다.

추진위원회의 발족, 활동의 의의를 굳이 돌아본다면, 21세기 여성들의 희망·밝은 미래를 위해 최초의 민간여성재단 설립의 틀과 발판을 세운 일이며, 둘째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우리사회 기부문화 저변확대에 이바지했다고 여겨지며, 셋째로 성평등사회화, 소외계층여성들 복지 등 아직은 미력하지만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실천해왔던 것 같다. 투명성과 공

정성에 바탕을 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배분운영방법도 하나의 특색일 것이다. 한국여성의 전당 건립은 계획만 세웠었다.

3년이란 짧은 기간 그리고 IMF 경제위기 중이었지만 참으로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선뜻뜻 후원기금을 내주었고,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주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한두 가지 언급을 해야 할 것은, 위원회 발족 당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박영숙 선생이 앞장서고 여러 여성단체장들과 함께 여성운동에 크게 뜻을 가지고 계신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가 힘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을 때 매우 난처해 하셨으나 결국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 자리를 맡아주시고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행사 때마다 그 어려운 현장동행까지 하시는 등 참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일을 여성재단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윤미향, 이재은 씨 등 당시 스태프들의 희생적 헌신 봉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국여성재단 사람들의 희생적 봉사에 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여성생활이, 우리 사회가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여성, 통합사회를 이루어가고, 국격 높은 나라로서 이웃나라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한 굵은 뿌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여성재단에 애정과 힘이 되어주는 사람·회원이 왕성하게 확대되고, 전에 관계했던 사람들도 더 한층 애정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연숙 | 한국여성재단 고문, 전 국회의원

## 한국여성재단, 10년을 맞이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이희호 여사가 등장했다. YWCA와 여성문제연구회 등 여성운동가로 폭넓게 활동하던 이희호 여사에게 여성계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고 내 꿈도 야무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전국여성대회를 한국 여성 전체의 축제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했던 박영숙 씨는 특히 이희호 여사와는 개인적으로나 여성 활동가로서도 친분이 두터웠다.

여성운동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이희호여사가 퍼스트레이디로 있는 동안 우리는 할 일이 많았다. 박영숙 씨는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정광모 소비자연맹 회장, 이길여 인천 길병원 이사, 경제계를 대표하는 민병준 씨 등 몇몇 여성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접촉해서 여성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기금 모으는 일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재단을 발족하고 오늘의 재단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고 배분 위원회가 사업별로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재단의 역사는 수많은 회의로 이루어졌다는 기억이 남는다.

모든 여성단체가 모금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여성이 힘을 모아 지방마다의 모금행사를 마련했다. 일본의서 '자게 & 아스카' 그룹을 초청해서 모금음악회를 개최했을 때는 일본에서까지 관객이 몰려오는 결과를 낳았다. 모금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해온 한국여성재단은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서 기부자의 폭을 넓히고 소액기부를 권장해서 참여를 독려했으며 기부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나의 희망은 기금을 1000억 원 정도 모아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일, 여성단체에 전문 인력을 훈련, 배치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보장하는 일, 국제회의 참가비를 지원해서 여성지도자의 국제 활동 영역을 넓혀 주는 일 등 무한한 것이었다. 결과는 만만치 않았다. 적은 돈이 모여서 억이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만하면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할 무렵, 챙겨본 모금액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퍼스트레이디가 나서면 쉽게 돈이 모일 거라는 상상은 빗나갔다. 퍼스트레이디는 한국여성재단 활동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고 모금을 앞장설만한 기회도 적었다.

얼마 안 되는 모금액에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니 지원할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한 끝에 건물을 매입했던 결정은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잘한 일이었다. 수입이 생기는 건물을 마련하기위하여 건물을 찾으러 다닌 분들의 노고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경제력 순위 10위권에 들어선 대한민국, 기부가 생활화되기 위한 외적인 여건은 이루어졌다. 문제는 일반 시민도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기에 내가 나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풍습에 십시일반이라고 하여 밥 한 숟가락씩을 열 명이 모으면 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정신이 스며있고 들에 나가 식사를 할 때면 식사 전에 '고시례'라고 먹을 것을 일부 떼어내서 사람뿐만 아니라 들판의 미물들에게도 베푸는 습관이 있었다.

모금활동은 모금액의 쓰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이다. 무슨 일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일에 기부한 사람은 어떤 몫을 감당하는 건지, 기부자가 크게 보람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긍지를 갖도록 모금활동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정확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의 앞날도 우리사회 전반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노력을 다하면서도 계속 목마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모금활동 자체가 홍보와 교육을 결들여 사회 환경을 바꾸고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모금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 한국여성재단 좌담회, “기억 그리고 상상”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앞으로 10년을 전망하며

일시 2009년 10월 14일

장소 이화학당

참가자 윤후정(이화학당 이사장), 박영숙(초대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김현자(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이계경(전 여성신문 사장, 전 국회의원), 이경순(한국여성재단 이사), 김혜련(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조형(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기록과 정리 김현아(작가), 금강산

**강경희** 여성재단의 10년을 회고하고 그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재단의 중심이 되셨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자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감히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다들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라 사회의 역할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웃음). 오늘의 취지를 고려하여 많은 말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조형:** 딸들에게 새천년을 열어준다는 초석을 놓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있기까지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성재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즉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재단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 아직 제가 이사장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재단의 10년을 되돌아보고, 이 과정을 10년사 자료집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여성재단을 함께 일귀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문서로 보거나 전해 들어왔던 여성재단의 역사보다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혜를 나누어 재단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담회를 위해 이화학당에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후정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재단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영숙** 어제 ‘사랑의 친구들’에 갔더니 마침 10년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갖고 와서 읽는데, 읽으면서 10년이라는 역사가 엮어낼 만한 분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재단 10년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성을 위한 처음이자 유일한 재단이 여성 시민사회와 함께 커가고,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 또 정부나 사회가 민간재단, 공익단체의 성장과정을 알게 하고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10년사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많은 재단이 필요합니다. 각 그룹별로요. 여성을 위한 재단이 여성재단인 것처럼. 이런 재단들이 생겨나는데 여성재단 10년사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후정** 6·25사변 나기 전에, 1948년쯤인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YWCA 영리더십 트레이닝때 박영숙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봤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몇 년 뒤 대학에 오니 박영숙이 있더군요. 그렇게 학교 동기로서 다시 만났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웃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그저 내가 어딘가, 그러니까 모임이나 세미나를 가면 그 자리에 늘 박영숙이 있는 식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영숙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따로 자주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관계지(웃음).

그러다 1996년인가 1998년인가 박영숙이 나를 찾아왔어요. 한국 여성들이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여성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고, 일을 할 때도 차별받는 일이 부지기수고 헌신이 강요된다고. 인구의 반인 여성들, 여

당시에 우리가 모임하고 일하는 방식을 봐도 돈 내면서 하는 식이었어. 모임에서 나가야 하는 돈을 우리 주머니에서 모아 내고, 밥값을 내고, 적은 돈 받고 일하는 등등.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으면 서도 기업에서 몇 천만 원, 크게는 억대로 후원받

그렇게 시작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 여성재단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의 여러 여성들을 모아 출범을 백적지근하게 치렀어요. 돈 모으는 건 박영숙이 했지.

**윤후정** 당시만 해도 정치계에 여성들이 거의 없었죠. 당이나 국회나 여성들을 안 뽑았으니까. 그래서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고 물었더니 정치할만한 여성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정치할 여성들을 추천했지요. 보수 진보 상관없이



성리더와 여성단체를 받쳐줄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물었지. 당신 돈 있나? 박영숙이 아주 당당하게 없다고 하더라고(모두 웃음). 맨 주먹으로 하는 거지, 라면서. 그 말이 크게 놀랍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이 뭔가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맨주먹으로 시작했으니까(모두 웃음).

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 안 찰 때가 많지. 여하튼 나는 박영숙에게 여성재단을 만들어서 돈 주는 것 말고 뭐할거냐고 물었지. 박영숙은 여성들이 아직 까지도 넘지 못하는 장벽이 정치계와 과학계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계에 가고 싶은 여성, 과학을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했어요. 그때 박영숙이 기획해온 것을 보니 많은 복지활동을 그리고 있었어요.

**강경희** 창립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윤후정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경 의원님은 국회에 진출하셨을 때 박영숙 선생님이 이제 여성재단에서 이계경 의원님이 하던 역할, 사람들을 아우르고 설득하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04년에도 여성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며 많은 것을 추진하고, 도움을 주셨지요.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다 추천했어요. 뽑는 건 각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린 추천만 한 거지. 그런데 그 때 호응이 꽤 컸지요. 자기 좀 그 명단에 넣어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계경 의원도 그때 그 추천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들어가게 됐죠, 아마.



박영숙

여성재단이 여성시민사회와 함께 커가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부와 사회가 민간재단의 성장과정을 알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10년사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계경:**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선생님들 뵈니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선생님들이 어렵습니다(웃음). 여성재단은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진 단체였어요. 예전에 지은희선배랑 이야기를 하던 중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여성들에게 우호적이고 여성들을 잘 아는 정권이냐, 여성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나누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은희 선배와 둘이 늦은 밤에 우면동 박영숙 선생님을 찾아갔지요. 이야기를 들은 박영숙 선생님이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각 단체들이 모금하느라 매번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재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날짜도 기억나요. 11월 5일. '한국의 집'에서 삼십 명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준비모임을 했어요. 그 때 목표액을 천억을 잡았어요. 꿈같은 얘기지만 한 번 그래봤음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집행위원들은 매주 서초동 국민은행 사무실에서 모였죠. 박영숙 선생님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다른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습 보면 선배님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재단 목표를 자선 사업을 하지 않고 공모하고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했죠. 외국사례를 보아야 한다고 돌아다니며 사례 모으고 조사하던 선배님들 생각이 나네요. 남자들은 돈 모으기가 쉽고 큰돈을 모았지만 여성들은 한계가 많던 시절이었어요. '여성신문'이 역할을 많이 했죠. 여성신문이 여성재단을 서포트하고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여성신문은 여성계가 힘을 모아 만든 신문이니까 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구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희** 집행위원에서 운영위원으로, 지금은 이사회 멤버이신 이경순 이사님은 지각 한 번 안 하고 모임 절대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분이십니다. 누가 늦으면 이경순 이사님 눈치를 보게 될 정돈데요,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여성재단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경순 이사님의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경순** 선배 창립멤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늦게, 가진 것도 없이 여성재단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것도 한 발만 걸친 상태네요. 이사는 어디에서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 했죠. 그렇게 한 발을 들여놨다가 이렇게 난생 처음 이사가 되었습니다(웃음). 여성재단과의 인연은 이대 동창회 임원을 하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에 이대 신문방송학과 동창회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돈을 건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학교 대강당 수리 건으로 2억을 모은 경험도 있어요. 그 때 현장에 이연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돈 모으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저 친구 돈 좀 모으는구나,(모두 웃음) 생각하셨는지 운영위원회에 초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로 추천해주셨죠. 저는 여성의식이 투철한 것도 아니었고 능력도 적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걸었으면 회의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빠지지 않고 나갔죠. 공부 못하는 아이 개근상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니 이사가 되었습니다.

**강경희** 기금모금 부위원장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김혜련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혜련** 한 게 없어 부끄럽습니다. 10년 전에 신문에서 여성재단 발족 기사를 봤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죠. 마침 그때 '우먼타임스'에서 첫 행사로 걷기 대회를 하고 있을 때라 행사 참가비를 여성재단에 기부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여성재단과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100인 기부 릴레이도 하는 등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되었구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여성재단을 도울 것이고, 잊지 않고 나중에는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김현자** 내가 요즘 연희동 실버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 발표라서 오늘 총연습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반장을 맡고 있어서 늦었습니다(일동 폭소).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당시 지은희 여연 회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데 NGO대 표로 올 수 있냐 물길래 목적이 뭐냐고 물었죠. 모금해서 NGO를 지원하는 것이라 하더군요. 그럼 나도 가겠다 했고 모임이 시작됐죠.

일곱 명이 1999년 10월에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정파성을 초월하자고 했죠. 왜냐하면 나도 정치에 관련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 주는 단체가 필요했지요. 김옥라 선생님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셨고 몇 분이 동참을 했어요. 박영숙 선생님이 애 많이 쓰셨죠. 일을 맡으면 전력투구를 하는 성격, 올인하는 성격이라. 이계경 선생 역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여성신문 아니었으면 발전이 어려웠을 겁니다. 기사 써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왔죠. 여성신문 참 애 많이 썼고 고맙다는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꾸준히 10년 동안 발전해온 모습을 보니 선생님들 모두 많은 일을 하셨다 싶습니다. 10년 전보다 여성의 지위도 많이 발전했고, 여성재단의 역할이 컸습니다.

**강경희** 초창기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면 다 제치고 와주셨던 것,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 모두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리하시진 못하셨지만 이희호 여사님께서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숙** 여성재단을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랑의 친구들'을 하면서였어요. 사랑의 친구들은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밥을 굶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급증하자 당시 영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이 땅에서 밥을 굶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설립하신 단체입니다.

사랑의 친구들을 하면서 여성재단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랑의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본격적으로 여성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죠. 당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성재단을 꾸리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돈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였습니다. 재단의 역할, 분배 등에 관해서는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돈을 주겠다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기부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찾은 곳은 전경련이었어요. 그때 전경련은 1년동안 1천억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부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불명예스러운 여론이었다고 하더군요. 사회공헌팀에서는 명예롭게 기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성재단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명예를 차별받고 있는 우리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우뚝서게 하는 일에 투명하게 사용함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찾아나선 것은 재단을 위한 인력구성문제였어요. 재단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을 위한 재단이니 만큼 대통령의 영부인이 앞장서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여성계가 기명한 7인 여성지도자들이 영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희호 선생님께 추진위원장을 부탁드렸죠. 선생님께서는 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셨으나 위원장은 고사하시고 명예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희호 선생님께서 명예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해주셨죠. 이희호 선생님께서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주셨지만 이사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윤후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 하시고, 여학사회 원로지도자인 김인순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또 거절당하고, ... 이연숙 선생이랑



윤후정

나는 여성재단이 굉장히 노력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것에 놀랍니다. 다만 이제 1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으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이서 이사장 찾으러 한참을 돌아다니고 거절당하고, ... 하는 수 없이 내가 이사장을 맡았고 결국 9년이나 하게 됐습니다.

**윤후정** 박영숙 선생님이 시작부터 여성재단 만드는데 가장 열심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사장을 하라 그러냐. 우리는 다들 이사장을 박영숙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어서 거절한 것인데.

**이계경** 맞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여성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영숙**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사장해서 본 손해가 있어요. 나는 소심하거든요. 창립 준비 당시 전경련의 부회장이며 새로 출범한 사회공헌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애경 장영신 회장에게서 재단에 100억을 기부할테니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100억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100억이라니... (웃음) 그런데 며칠 뒤 약속한 날짜에 나가니 그쪽에서 100억이 아니라 10억을 내놓더라고. 당시 전경련 회장이 김우중 대우 회장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100억을 10억으로 줄인거라. 그때 나는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이었으니까.

**일동** 아이고 선생님~

**박영숙**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윤후정 선생과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 배짱 가지고 뭘 하냐고 궁시렁 궁시렁 하셨지요.



김현자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할 자질을 갖춘 여성들을 선출하고 추천했던 게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였죠. 그게 굉장한 관심을 받았어요. 그때 뽑혔던 이들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많아요.

시작하면서 여성재단 목표액 잡을 때도 윤후정 선생 같이 배포가 큰 사람들은 1천 억을 부르는데 나는 1백 억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받았던 돈과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16억으로 재단을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재단 설립을 위해 행정부를 찾아갔더니 그때 행정부 관료가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재단을 만든 유래가 없다면 재단 설립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라. 관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보수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시간에 걸쳐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인정을 받았죠. 그 당시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것이 여성의 전당을 짓는 거였어요. 이런 바람을 알고 있었던 고건 총리가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의 양재동 노른자위 땅을 재단에 57억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재단에도 57억 정도가 있고 건물을 짓는 것도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는 등 여러모로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사려하자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노른자위 땅을 여성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땅을 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땅값을 57억에서 90억으로 올려버리는 거라. 여성의 전당 추진사업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한다는 의견과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소심한 박영숙은 프로젝트를 접었죠.

윤후정 이회호 여사 때도 그랬지만, 다음 정권에도 영부인께서 여성재단의 명예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요.

여당과 야당,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영부인이라면 여성의 리더로서, 인구의 반인 여성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생각이었죠. 권양숙 여사는 생각과 고민이 깊으신 분이래 여성재단과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보니 잘 안 됐죠.

박영숙 청와대 내부 사정이 참 힘들겠더라고. 왜냐하면 영부인이 활동한다는 것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구나.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사무총장과 내가 영부인에게 여성재단 명예직을 부탁드리려고 찾아갔었어요.

영부인은 대통령께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거절했죠. 여성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진 않았지만 기부 릴레이가 끝나면 꼭 오찬을 만들어주시는 등 여성단체를 많이 격려해주셨어요. 그리고 청와대 떠나시기 직전에 오찬에서 여성재단의 명예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네요.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똑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강경희 몇 차례 확인 전화를 드려봤는데 거절은 아니고 계속 숙고중이라고만 하시네요.

김현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이야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할 자질을 갖춘 여성들을 선출하고 추천했던 겁니다. 그게 굉장한 관심을 받았어요.



이계경

남자들은 돈 모으기가 쉽고 큰 돈을 모았지만 여성들은 한계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성신문'이 역할을 많이 했죠. 여성신문은 여성계가 힘을 모아 만든 신문이니까 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이름 좀 넣어달라고(웃음). 그때 뽑혔던 이들이 국회의원 된 경우가 많아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많이 갔죠.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맑은정치여성 네트워크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다고 들었어요.

**박영숙:** 타이밍이 좋았죠. 정치권의 부패나 비합리성이 지탄받을 때라서 정당마다 대변인이나 대표를 여성들을 앞세웠어요. 여성들이 참여할 때 국가가, 정치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고 정당이 후보로 여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라 성공할 수 있었지요.

**윤후정:** 앞으로 여성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됐죠.

**박영숙:** 그동안 기금운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목표를 천억으로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백억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성재단 이후에 생긴 재단들에서 몇 백억씩 모은 걸 보면 부진한 성과죠. 돈을 모으면서 기부에도 성차별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돈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재단은 기금모금 대신 사업지원금 모금에 주력했습니다. 기금이 수백 억이 된다 해도 그 과실금으로 만드는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깐. 그래서 주로 사업별 프로젝트를 받아왔어요. 아직까지는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기부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죠. 주로 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고 채택되는 것도 복지나 자선 위주예요.

**윤후정:** 여성재단의 목표와 방향 정립을 새로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이 같이 힘을 보태야 선진화가 되요. 여성의 힘이 여러 면에서 보태져야 여성운동 방향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성역할에 대한 간격을 좁혀가야 하고, 사상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의 간격을 좁혀 함께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사회, 통합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도 인간답게 살고, 공동체에서도 국가와 가정에 책임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통합여성, 통합사회를 위해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성단체들도 지금 굉장히 변했는데, 옛날의 허울이나 옛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따분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화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성단체들이 회합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방향과 용어를 바꾸어 가고,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여성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경:** 말씀하신대로 국력의 반인 여성들이 그만큼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더 이상 향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여성도 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성 취업률이 50.4%에서 48.8%로 줄었다는 통계가 두 달 전에 나왔습니다.

**윤후정:** 그러니까 내 말은 국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여성도 그만큼 노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장에서는 여

성들이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계경:** OECD 국가들의 여성취업률이 70%가 훌쩍 넘는데 우리나라만 50%미만으로 나왔어요. 말로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영역 쪽에서도 여자들이 자기들의 정서적인 면에 도움되는 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와 문화 영역 쪽으로 여자들이 커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감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추상적인 것에서 움직이지 말고,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재단의 홍보를 위해서 여성신문에 여성재단 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었었죠. 새로운 소식도 신고, 기부자 명단도 신고. 앞으로도 그렇게 재단과 여성신문이 연합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홍보가 되니까. 사회공헌기금은 각 단체들이 다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디다 써야 할 지 몰라서 주변 인맥으로 기금 쓰는 일도 허다해요. 여성계가 다시 워크숍을 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을 끌어야죠.

**박영숙:** 여성계를 통합해서 한다면 미래포럼과 연결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경순

지금 지방의회에는 여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에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여성재단이 어떻게 도와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혜련

10년 전에 신문에서 여성재단 발족 기사를 봤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죠. 마침 걷기대회를 하고 있을 때라 행사 참가비를 여성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계속 조금씩이라도 여성재단을 도울 것입니다.

**윤후정** 여성계가 모일 때는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든 선진국이든 외국의 사례와 통계를 보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화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야 합니다. 남성들을 아우르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뉘, 기본정신은 이어가야죠. 나는 그 동안 여성재단이 굉장히 노력했고, 애 많이 썼고,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것에 놀랍니다.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여성재단의 식구들을 위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1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으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순** 내년엔 당장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에는 여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국회의원 비율보다도 더 낮죠. 국회는 그래도 10%가 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에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여성재단이 어떻게 도와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젊은 노인들이 더 나이 든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필요 한데, 정계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여성재단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후정** 여성재단이 연결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가에 대해 질문해봐야 할 때죠. 복지사업 하려고 여성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생존의 문제라든지, 처참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타이틀도 그대로 같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조형** 딸들에게 희망을, 슬로건이 오래됐고 소프트하고 약해 보인다는 의견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꿀까 했는데 여성의 권력화, 경쟁력 강화 식으로 슬로건을 걸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나타낼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도 딸들에게 희망을, 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명함에 다시 딸들에게 희망을, 을 찍었습니다. 모금을 하는 데는 이 슬로건이 유리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해서요. 그렇지만 슬로건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으니까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선생님들의 말씀을 참고하고 반영해서 더욱 나아지는 여성재단이 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강경희** 바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또 뵈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

새천년을 딸들에게 열어준다는 초석을 놓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성재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선생님들의 말씀을 참고하고 반영해서 더욱 나아지는 여성재단이 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 한국여성재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1호! 김미화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이 벌써 열 살이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묵묵히, 꾸준하게 여성들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여성재단 파이팅하시구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저 김미화도 늘 여성재단과 함께 할 거예요.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김미화**

김미화 방송인,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1호, 2000년 5월 위촉

모금캠페인과 기념식 등에서 사회를 맡아 한국여성재단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7년 SBS <김미화의 U>에서 여성주간 특집모금생방송 <엄마 힘내세요>의 진행을 맡았고, 소외계층을 위해 쉬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양재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서교동으로 사옥을 마련하여 오기까지 10년 동안 재단활동을 함께 했던 역대 사무총장들의 열정은 어떠할까.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딸들을 위한 작은 소망들이 열매맺기까지 믿음과 보람으로 이어졌던 나날들. 그 과정속에서 함께 했던 기부자, 파트너기업, 파트너단체들과의 든든한 우정을 소개한다.

## 사무총장던(傳)

## 그때 그렇게 재단이 만들어진 게 다행스러워요

이재은 여성재단 초대 사무처장에게 듣다



### 재단에 관한 공적인 기억1 **인큐베이팅**

박영숙 선생님이 <사랑의 친구들>에 계실 때 여성재단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셨어요. 힘없고 돈 없는 여성단체, 여성 개인에게 도움과 기회를 제공해 주려 하셨던 거죠. 여성 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뚜렷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여성단체들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와 기업의 지원에 의존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에 자기 사업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가 변형되죠. 전략적 설정 아래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식으로 단체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화두가 이주여성이면 이주여성 프로젝트에 대한 돈만 지급하는 식이고 그럼 여성단체들은 또 이주여성에게만 몰리게 되고.

그런데 민간 재단은 기업과 정부, 여성단체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보다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고, 기업이 자기 식으로 사업을 벌여 거기에 여성을 끌어넣는 것보다 여성재단이 모금을 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여성단체의 활동이 더 자율적일 뿐 아니라 개인 여성을 더 잘 도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점이 아니면 재단을 못 만들거라고 생각했어요. 진보적 여성운동과 보수적 여성운동을 다 아우르기에 좋은 시기였고 여성운동 출신이신 이희호 여사님이 영부인으로 계시니 시기가 좋았어요. 재단의 중점 분야는 여성의 복지, 평등, 발전 세 가지 파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평등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었어요. 평등은 불평등에 대한 제한된 개념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려면 통합, 공생, 상생 등의 개념이 필요했거든요. 여성재단이 여성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발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컸어요.

**재단에 관한 사적인 기억1 몸이 못 버텨어요**

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어린이·어머니창조학교 등 새로 시작한 조직에서 늘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박영숙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여성재단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했지요. 1999년 10월경부터 한 3개월 동안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재원을 모으고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가 실무 일을 많이 해주셨지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3개월 동안 회의하고,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당시에 재단 만들기에 함께 한 분들도 하나같이 유명하고 바쁜 분들이라 그 분들 모아서 회의 한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무총장은 못하겠다, 사무총장을 구하면 내가 그 밑에서 사무총장을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내가 하게 됐어요.

**재단에 관한 공적인 기억2 공간**

준비단계에서는 환경정책연구소에 있는 공간을 사용했는데, 재단이 시작될 즈음에는 독립을 해야 했지요. 공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돈을 내고 쓸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사무실도 기부를 받겠다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의지를 세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더라고요.

당시 실무자가 아는 사람을 연결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국민은행이 공간을 지원해주게 되고 사무실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대역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5년 정도 지내고 지금 여성재단 건물을 사서 들어온 거예요.

**재단에 관한 사적인 기억2 응원과 격려**

재단 설립을 준비하게 되면서 지금 여성재단 임원으로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조형 선생님을 찾아갔을 당시에 선생님은 여성운동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는 것, 경직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여성운동의 초심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와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니 선뜻 백만 원을 후원하셨지요. 그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격려도 많이 되었구요. 1983년도에 제가 여성평우회 할 때 조형 선생님이 대표로 계셨는데 조형선생님과 함께 여성평우회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당시 선생님은 여성평우회 빈민지역 공부방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하셨었지요. 장필화 선생님도 여성재단은 정부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라며 조언해주셨고요.

**재단에 관한 공적인 기억3 모금**

공간을 옮기고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돌입했어요. 제일 먼저 고액 기부자 리스트를 짰죠. 고액기부자들을 상대하려면 내부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하고 또, 대표가 그들을 섬세하게 관리해줘야 해요. 가장 중요한 펀드레이저는 대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펀드레이징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고. 대표가 그렇게 모금을 하면 사무총장은 전체 홍보 마케팅 기획을 해야 하는데 사무총장이 실무에 매달리다 보니 거액 모금을 기획하고 조직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 거액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모금 전문가를 영입하지는 않았지만 나왔는데 거액모금은 굉장한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디 쉽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각각의 사업에 맞는 모금 전략을 몇 개씩 내놓을 수 있어요. 처음에 투자를 해서라도 모금과 관련한 전문가를 길러내 전략적이고 약간의 공격적인 사업들로 치고 나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재단에 관한 사적인 기억3 마음을 못 열었어요**

저도 그전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콘서트, 전시회 온갖 거 다 하면서 돈 모았던 경험이 있었던 지라 펀드레이징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돈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여성노동단체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 편당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대한 저항도 많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식도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성공적인 모금전략>이라는 책에서 ‘펀드레이저는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재단 일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얼마 못하고 떠나서 재단 식구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제가 건강 때문에 상근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박영숙 선생님의 프로젝트 구성 능력을 받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요.

**재단에 관한 공적인 기억4 프로그램**

여성재단 발족하고 나서는 5월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재단을 사회에 알려야 했고 또 소액 다수 모금의 전형적인 방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모금 마케팅을 해야 하지요. 당시에 영부인도 계셨고 하니 기획 자체가 컸죠. 그러다보니 방송사들의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행사도 잘 됐고요. 5월 캠페인, 재단의 기업 관련한 모든 것, 기부 방식 모두가 박영숙 선생님 아이디어였어요.

Dear, 여성재단

재단은 산하 단체에 비해 규모도 크고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경험이나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구조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해야죠.

NGO를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 방식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열정, 패기, 의미로 치고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액 모금, 소액다수기부자를 관리하는 마케팅 조직방법 등 주요 전략들을 연구해야죠.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나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등등 전략이 있어야 해요. 예산 관리도 마찬가지고.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의견이 많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중요한 펀드레이저들이지요. 펀드레이징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경험도 많지 않고 힘도 달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쉬워요. 전략적인 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도 다 이런 부분들이예요.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게 조직이 살 길이에요. 실무자나 위원들을 전문가로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지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문가로 키워내는 훈련에 투자하는 재원이나 역량배치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내부행정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쓰느라 그런 부분을 놓쳤죠. 인사부터 의사결정, 위원구성 등 내규가 탄탄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직원 고용 대책, 직원의 복지 대책,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서화도 중요하고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일한 시간이 짧다 보니 많이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재단 역사가 이제 10년이니 한 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재단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벌어나가면 여성 단체들의 활동 공간을 침해하기가 쉽지요. 솔직히

재단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곳이 사업의 크기도 크고 질도 담보가 되잖아요. 기회도 많이지고. 그렇게 재단이 다 해버리면 여성단체에게는 기회가 별로 안 가는 거지요. 재단은 여성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자는 게 당시 박영숙 선생님의 생각이셨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하면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체 지원으로만 해서는 돈 모으는 것도 제한이 되고 홍보도 안 돼요. 돈을 모아야 하는데, 재단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전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추신

그때 그렇게 재단이 만들어진 게 참 다행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여성들에겐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박영숙 선생님, 조형 선생님, 강경희 총장님 모두 공적인 이익과 여성들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이 똑같으세요. 앞으로도 여성재단의 이런 순수성과 정직함이 계속 전통으로 살려져야지요. 여성재단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고 또 권력이 약하니...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진정성과 정직함으로 헤쳐나가며 꾸준히 발전하는 여성재단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욱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윤미향 여성재단 2대 사무처장에게 듣다



인연

여성재단과 인연을 맺은 건 1999년이었어요. 한 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피해지들과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심신이 너무 피폐해졌을 무렵이었죠. 좀 쉬고 싶은 생각에 정대협을 그만두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여성들을 위한 평화 기행, 금강산 기행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은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여성재단을 발족하려고 준비하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죠. 바로 그 해 12월에 입사했어요. 그리고는 기획팀장을 맡아 이제는 사무처장님과 공동관리 추진위원장이 되어 5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여성재단 초기 시절엔 기금 마련과 홍보가 주된 사업이었죠.

Special thanks to

초창기 시절에는 TV 스포츠 광고 등을 만들어 가면 정광모 선생님, 민병준 광고주협회 회장님이 이는 분을 연결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 연속 위원장님(여협 대표, 정무장관)은 지역 네트워크 만들기를 기획할 때, 전 지역을 동행하셨어요. 당시 이분들이 거의 60대에 가까운 연세셨는데 함께 발로 뛰며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지요. 이계경 여성신문 사장님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천안까지 동행했어요. 명함뿐인 이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어요.

열정

초기 여성재단에 몸담았던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모두 열심이었어요. 희망들이 컸지요. 실무자들은 여성계 추천으로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 때문인지 결의들이 대단했어요.

2000년대는 진정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기가 되길 바랐던 거지요. 지금 생각해도 팀워크가 대단했어요.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5명이 일했어요. 1년 열두 달 밤낮없이 일하는데 익숙해져, 제시간에 편하게 퇴근할 때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여성재단의 로고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어요. 여성디자인협회에 계신 분이 응모한 작품을 보우실업에서 제작했지요.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제품의 질이 아주 뛰어났어요. 초창기 때 실무자들은 기획력이나 행동력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듯해요. 저도 공식 지위는 사무처장이었지만, 기획과 영업도 하면서, 전방위로 뛰었지요. 그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5월 캠페인은 2000년도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백화점을 쫓아다니며 영업팀장과 광고부장 섭외하고, 길거리 캠페인, 모금활동, 배지 판매를 통해 여성재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었지요.

초창기 시절의 주된 사업이 기금마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 중 하나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게 & 아스카'라는 일본 가수의 내한 공연이었죠. 일본 가수의 공연이 자유화되기 전으로, 이 공연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어쨌든 이 공연으로 당시 1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티켓 판매비와 기업 협찬금은 기본 재산으로 넣고 11억 원은 사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구야. 기획사에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사전에 공연 협찬금은 기획사가, 그 외에는 여성재단이 쓰기로 협의가 됐는데도 말이죠.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당연히 법정에서는 여성재단이 이겼지요.

그 밖에도 몇 번의 콘서트를 더 했어요. 주로 여성갈라콘서트,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해서 한 기부콘서트, 나눔콘서트, 운도현밴드 콘서트 등이었지요. 매 콘서트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때는 개인의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무자들의 친구들이 전부 자원봉사자였어요. 여성 단체의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기 힘든 시기였어요.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기부를 했죠. 그래도 이희호 여사님이 명예위원장으로 계셨을 때는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었지요. 윤후정 명예이사장님, 박영숙 선생님, 정의숙 공동위원장님도 많이 애쓰셨지요.

#### Special thanks to

아, 제가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자원봉사자 김성애 선생님이예요. 효성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성으로서 영업부장을 하셨던 분인데,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여성재단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셨지요.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당시 선생님 차 안에서 우동을 같이 먹으며 신세계 등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애경 상품 등에서 '딸들에게 희망을' 로고가 제대로 붙었는지 점검도 해주셨지요. 김성애 선생님은 여성단체 출신도 아니었어요.

'사랑의 친구들'을 할 때부터 인연을 맺은 분이데, 교통비도 안 받으시면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그만 두고 얼마 안 되어 선생님도 그만두셨더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꼭 하고 싶어요. 상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 분이예요, 정말.

#### 보람

힘들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았어요. 어느 단체든 초창기 시절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여성재단 자산도 다 그 때 만든 자금이 기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리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지요. 한 마디로 사람 사는 세상 같았다고나 할까. 함께 봉투를 붙이고 사비를 털어 밥도 사먹고... 고생 속에서 엮어진 정이라 잊기 힘든 사람들이지요. 또, '딸들에게 희망을' 길거리 캠페인 때는 딸딸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을 해주던지,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슬로건을 '딸들'로 내건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서였지요. 이 캠페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설득력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여성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며 방어적이지만 딸들이라고 하면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여성 운동과 멀었던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슬로건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백화점 직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바자회를 할 때면 백화점 정문 앞을 여성재단의 배너, 이미지 등으로 꾸며주고 별도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기도 했지요. 홍보도 많이 됐지요. 단 순히 물품을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금함도 설치해 주고, 사람들의 메시지도 받고, 여성재단 배지도 판매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깐, 처음엔 공적인 관계에 있던 백화점 직원들과 사적인 친분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래서 목표액에 못 미치면 직원들이 자신들의 월급 중 일부분을 약정하기도 했어요. 잊지 못할 일들이죠.

#### Special thanks to

기업에 기부 요청을 하러 가서 만난 분 중에 장영신 애경 사장님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부를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바라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장사장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어요. 아마 여성 기업인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게 사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죠. 생색을 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당시 애경산업 물품엔 여성재단 홍보 사진이 붙어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애경산업을 많이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아쉽게도.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느낌이 없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 바람

요즘 들어 홍보가 예전에 비해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실무자들의 정서나 자라온 환경이 우리 때와는 달라서 그런지, 운동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직장이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거 같아요. 사실 현장으로 느껴야 여성운동에 걸맞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나오는데. 또 다른 바람은, 여성재단이 다양한 기금을 마련해 냈으면 좋겠어요. 해외 기금도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점은, 여성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결혼 후 출산했을 때 자녀를 책임지고 맡길 공간이 없어요. 실무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나 공동육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출산 후 육아 문제 때문에 그만 두면, 결국 우리 사회의 손실이지요.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 단체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산인 여성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성 인력을 키워서 리더로 성장시키고 정계에 진출시키는 그러한 시스템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기본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거든요. 연금 같은 제도도 생각해 볼 만하죠. 마지막으로 현재는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미미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지원들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봐야 해요. 지금은 여성단체나 진보단체들에게 생명의 물,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꼭 말하고 싶어요.

## 주는 손은 겸손하게, 받는 손은 당당하게

### 강경희 현 여성재단 사무총장에게 듣다



#### 발단 2002년 4월 15일 날 재단으로 첫 출근을했어요

당시 4년 동안 일하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그만두면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쪽으로 가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철순 대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여성노동자회 영문 뉴스레터 자원봉사를 5년 했었거든요. 여성재단에서 사무총장을 구하는데 저를 천거했다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가기로 했다고 얘기했더니 교회운동은 좀 더 늘으면 하고 여성재단 인터뷰를 해보라고 그래요. 식구들이랑 의논을 했죠. 당시 운동본부는 명동에 있고 여성재단은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여성재단은 집에서 거리도 멀고 일도 많아서 너희를 돌봐주기에 힘든 면이 있고, 운동본부는 많은 배려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좋은 환경이긴 하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운동본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서였어요. 딸이 입시생이 될 때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래요.

엄마는 참 이상하다, 엄마의 일을 정하는데 엄마가 무얼 원하는지, 엄마한테 무엇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냐, 그 생각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엄마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고 우리는 그 다음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 충격도 받고 감동도 먹었어요. 아들은 운동본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구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라 식구들이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하던 때였거든요. 남편은 지금쯤은 책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구요. 생각해보면 딸이 여성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였던 게 여성재단으로 오게 된 중요한 계기였던 거 같아요.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성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성재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 그때까지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재단이 여성운동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을 초대할 건 모금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정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직접 모으고 사용해오다가 민간의 재원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들어지면서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1999년에 여성재단이 설립되었고, 이때만 해도 기업들이 특별히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기부에 참여했었습니다. 서서히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지정기부가 늘기 시작하고 모금단체들은 모금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과 기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성재단에서도 당시 전체적인 사회 흐름을 보면서 모금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부 논의를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여성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여성재단에서 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모금회 활동 경험이 이곳에 필요하다면 쓰시길 원한다고 했고,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공부해보겠다고 대답했죠.

사실 갈 때만 해도 여기서 꼭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살짝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여성운동 안 했다는 게 흠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출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영숙 당시 이사장님께 3개월 수습기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나도 모험이고, 조직도 모험인 것 같으니 3개월만 서로 합을 맞춰보는 기간을 갖자는 의도였죠. 고백하자면, 사실 저는 여성운동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5년 동안 홍콩에서 IMCS(국제기독교학생운동) 일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땐데, 돌아켜보면 국제연대적인 그 일을 하면서 나

름 합리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던 거 같아요. 저는 아시아팀에 속해 있었는데 인도 신부님 한 분 하고 필리핀 친구, 홍콩 친구 이렇게 넷이서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했어요.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버마, 한국, 그 여섯 나라를 우리 팀이 담당했죠.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각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일하는 걸 몸으로 훈련받은 셈이죠. 어쨌든 그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때였는데 우연히 여성평우회 만드는 자리에 갔었어요.

어떤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는데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좀 못 참거든요. 여성운동에 대한 첫인상이 그래서 사실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였죠.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모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분들도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운동과 관련한 경력이 아무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여성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어이도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이는 게 없어 하고. 그런데 한편으론 차라리 편하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라 생각하셨는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솔직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성재단 만들어 놓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밥그릇 싸움 하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이

야기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여성재단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알 수 있었으니까. 여성재단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했더니 여성단체 활동가들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올 즈음 여성재단이 처음으로 배분 사업을 시작했어요. 배분에 관련한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죠. 모금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분사업의 틀을 만들고 평가의 방법을 고안하는 일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내 쓰임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여성재단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숙 이사장님도 같이 가자 하고. 시작할 때부터 여성운동을 사랑해서는 아니었지만 과정 속에서 여성활동가와 여성운동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지고 다져진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전개 여성단체들에서 받은 첫번째 감동은 파트너기관을 방문할 때였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단체 방문하는 걸 '실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실사'를 가면 감사 받는 사람들처럼 단체장부터 직원들까지 일렬로 죽 도열해 있어요. 서류 다 책상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검사하러 나간 것만 같은 인상이 강했더랬어요. 하여 여성재단에서는 늘 '실사'라는 표현보다 '파트너기관 방문'이라는 표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한 번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더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약속시간까지 좀 기다

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주는 손은 겸손하게, 받는 손은 당당하게, 라고 말은 하지만 관례상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서는 그게 실천이 되는구나, 감동이었죠.

속을 들여다보니 그 당당함에는 배경이 있었어요. 여성단체들은 정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더군요.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건 거리낄 게 없어서였던 거 같아요. 어떤 단체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십여만 원이 남았다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 재단에 떳떳하게 요구하고 할 말 하는 거죠. 겸손하게 주게 만들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과 태도에 굉장히 매료됐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과 자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마침내, 사랑하게 됐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재단 초기 시절 저는 양성애에 대해서 정신병자, 이상한 사람,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면에선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배분 사업을 하는 두 번째 해에 양성애단체에서 지원 신청을 했어요. 속으로 싫었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다행히 저의 장점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공적인 일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양성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얘기했나봐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양성애에 대한 자료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배분팀장이 갖다놓은 거죠. 공부 좀 하시오 하고. 물론 그 단체는 그 해 지원금을 받았죠.

여성활동가들은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이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아닌데, 자존감을 손상당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훈련되어 있던 터라 그런 부분에선 좀 달랐어요. 여성재단은 개같이 벌고 단체들은 정승같이 쓰면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개같이 라는 건 나쁜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재단에서 일하던 초기 시절엔 기업과 여성단체들 모두에게 틈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어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재정마련에 노후우를 마련해가고, 기업들은 단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공감할 수 있는 더듬이를 만들어가는 시간. 사실 기업들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변하고 달라지거든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숨 쉴 틈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해요. 숨 조절이 필요한 거죠. 여성단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재단이 숨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는 이런 거예요. '영회가 A기업의 장학지원을 받아 대학원을 졸업한다. 똑똑해진 영회는 A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걸 찾아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때로 시위를 한다.' 그게 허용되는 사회라면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겠죠. 기업은 이윤창출이 중요한 목표예요. 이윤을 생산하다보면 때때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NGO는 눈에 불을 켜고 기업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기업이 NGO를 이해하고 열려있었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NGO 만나서 말 잘 못했다가 큰일날까봐 기업 사회공헌팀 실무자들 말도 잘 안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로 숨고르기하고 한 발씩 다가간 거죠. 요즘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업들에서 먼저 전화해주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곤 해요. 그럴 땐 정말 감동이 커요. 여성재단이 이제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무르익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다 여성재단의 재산인 거죠.

**위기 그것이 무엇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모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성들을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재단이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오더군요. 이게 웬 자다가 떨어진 꿀떡이나 했죠. 여성재단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으니 공중파를 통한 홍보도 되고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기회였죠. 다음 주에 그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을 맡아 하게 됐다는 작가와 피디가 찾아왔어요. 외주제작이니 하는 데 대한 감이 전혀 없었을 때였어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연말특집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ARS를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통상 1억은 모금이 되니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보자는 이야기까지 하구요.

그래서 당시 여성노숙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던 서정화 소장님을 만났어요. 남성노숙인에 비해 그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성노숙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들어보니 여성노숙인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때로 여성노숙인들은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느니 차라리 새우깡 한 봉지라도 아무나 만나 하룻밤 지붕 있는 곳에서 머무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노숙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드롭인센터라 하더군요. 쉼터는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보완되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한데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이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머물고 씻기라도 할 공간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1억이면 드롭인센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드롭인센터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바자를 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 한화 사회공헌담당 팀장을 찾아가서 콩코스 백화점에서 바자회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애초 제안했던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결연결해서 담당피디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이러는 거라. 우리는 이미 계획이 다 짜여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네는 특정모금방송이 생겨서 모든 ARS를 거기로 몰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되어서 모금방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라. 알고 봤더니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한 외주제작팀이 미안해서 우리 쪽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정말 숨이 확 막히더라고.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나 보기는 처음인 거 같아. 그래서 말했죠.

“당신 돌 던진 거다. 나도 같이 던졌다. 나하고 당신하고 던진 돌에 개구리 여러 마리 죽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일을 꼭 한 가지는 할 거다. 당신도 그래라. 안 그러면 지옥 갈 거다.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빛을 쬐었으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 날 밤에 엄청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너무 미안한 거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찾아가서 막 꿈꾸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손을 놓는다는 게. 한 숨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한화 사장님을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1억이면 여성노숙인을 위한 드롭인센터가 생긴다, 한화가 송년회비를 모아서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 임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뜻 깊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울었대요. 급작스러운 제안이지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고 왔는데 다음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애타게 기다릴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한다고, 한화에서 드롭인센터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서울역에 여성노숙인을 위한 드롭인센터가 생겼어요. 물론 콩코스 백화점에서 바자회도 열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화 임직원들이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노숙인에게 식사제공도 하고 한화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드롭인센터에 목욕탕, 화장실 공사는 물론 보일러 공사까지 해주셨어요. 재료까지 다 들고 와서. 그것도 모자라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텔레비전도 큰 걸 사다주셨죠. 최대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만들었던 감동 깊은 순간이었죠.

**절정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으로 지낸 8년**

저는 예전부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밥값은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의 인원을 늘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2002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여성재단의 상근자는 다섯 명이었어요. 지금은 스무 명이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일하는 사람의 규모를 늘린 것은 재단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계가 함께 모여 무슨 일인가를 해내야 했을 때 여성재단이 그 역할을 맡기도 했지요. 재단이 여성계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박영숙 전 이사장님의 힘이 컸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재단에 와서 박영숙이라는 어른을 모시고 그분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성운동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저를 여성계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일이 터지면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모든 공은 다 저한테 돌리셨어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언덕이었죠. 돌이켜봐도 재단의 초대이사장 일을 해내기에 더없이 훌륭한 분이셨어요. 재단은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심이 있으면 곤란한데 8년을 모시고 일했지만 정말 사심이라곤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가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큰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어떤 자리 내정자에 대한 인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론 이사장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분

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장점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봤죠. 이리이러한 점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여성들이 너무나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명이라도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내보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지금 그 일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사람을 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랑 노선이 비슷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단 한 번도 혼자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하셨죠.

맑은정치여성운동본부 일과 로또기금의 경우가 여성재단이 여성계와 함께 한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맑은정치여성기금은 많이들 아는데 로또기금 이야기는 그 과정과 내막을 잘 모르더라고요. 로또복권이 처음 생겼을 때 엄청나게 팔리면서 돈이 모였어요. 당시 주택은행에선 주택복권, 보건복지부에선 복지복권, 환경부에선 녹색복권 등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 복권을 발행하는 부처들에서 그 돈을 운용했죠. 그러면 이 엄청난 로또기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거냐, 그런데 당시 복권 관련 기준법을 만들면서 기존에 복권을 가지고 있던 부처들만 그 기금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여성계는 여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구요.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여성계는 왜 로또기금 요구를 안 하나, 여성들도 복권을 많이 살 텐데, 하는 거예요. 당시 복권 소유 부처별로 로또 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복권 미발행 부처 소속 몇 영역에서 로또 지분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다음날 이사장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민우회 공동대표였던 윤정숙 선생님과 함께 여성계 대표단을 꾸리고 여협, 여연, YWCA 등 단체들과 함께 당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일종의 항의성 방문을 한 거죠. 그래야 여성부 쪽에서도 할 말이 생기니까. 그리고 당시 고건 총리를 찾아가서도 로또기금을 여성계에게도 할당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각 부처 차관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복권위원회에 여성부 차관도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죠. 그렇게 해서 로또기금 중의 일부가 여성계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 기금으로 돈을 받아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여성인권센터 ‘종이학’이 문을 열었지요. 여성재단이 여성의 몫을 챙기는 데 한 몫을 한 거죠.

여성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늘 부족해요. 그나마 기존에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늘 말이 많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성재단은 여성발전기금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래서 살려놓고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단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훌륭한 여성 리더들과 재계를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여성 리더들이 기업인들과는 정말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성계 리더들과 기업인들이 만드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고 미래포럼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래포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단은 항상 최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발단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성장한 강경희를 봅니다**

재단에 와서 8년차인데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결혼 20주년 때 이틀인가 휴가를 내서 남편 이랑 제주도 갔다 온 거 정도를 제외하곤. 생각해보면 누가 시켜서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었던 건 성취감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재단은 참 다이내믹한 곳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고, 꿈꾸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지요. 물론 때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보다 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게 날 건강하게 해주는 원동력 같은데, 나쁜 건 빨리 잊고 칭찬한 거는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그건 빨리 잊고 좋은 말을 한 건 일 년 내내 기억해요, 혹은 하려고 해요. 그리고 후회는 습관적으로 잘 안 해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편이구요. 내가 한 선택이 항상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재단에 처음 온 강경희는 분명히 결격 사유가 있던, 핸디캡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다 여성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하지만 여성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여성운동에 애정을 갖게 되고 지금은 저 역시 여성운동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